

JT의 꿈, 사회적 금융-디지털·글로벌 두 날개로 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금융, 飛上 2020 전략

(3) 하나금융그룹

“과거 성공방식 미래 보장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기술금융·투자 진행
RPA 등 기술 통해 업무 전문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을 ‘변화(Reset)의 해’로 잡았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는 급격한 기술 발달을 고려해 야할 뿐만 아니라 주주·손님·직원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과거 10년의 성공 방식이 다가오는 10년의 성장과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프로세스 고도화로 체계적 손님관리

하나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404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1483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2조4494억원이 예상된다. 비은행 계열사 수익이 큰 폭으로 향상되면서 그룹 내 사업부문간 포트폴리오가 한층 탄탄해진 점이 순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그룹 출범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넥스트 2030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 회장은 ‘CEO 특별강연’에 참석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리셋(Reset)’·‘리빌드(Rebuild)’·‘게임(Game)’이라는 3대 경영원칙을 제시했다. /하나금융그룹

했다.

이제 하나금융은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화 및 협업체계를 통해 고객 경험을 높일 계획이다. 업권의 경계를 넘는 사업부문제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클라우드 등 기술을 통해 업무 전문성도 높인다.

고객의 여정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상품의 신규에서 만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자동화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조정 및 준비·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발생시 대응력을 높인다. 상품의 성과 측면에서는 고객 수익률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고객 관점에서의 완전판매를 시스템화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은행의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사회적 금융으로 ‘모두의 기쁨’ 달성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을 통

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하나금융의 경영 슬로건을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로 바꾼 것은 그래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서민·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보육사업을 지원해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혁신기업에 기술금융과 투자 등을 진행함으로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1Q 애자일 랩(Agile Lab)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제휴 등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서는 신남방지역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대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포용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로운 2020년에는 우리의 강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와 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글로벌 협업으로 미래 금융 선도

하나금융은 계열사 간 협업과 더불어

어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해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기존의 사업 기반은 확고히 다지면서 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상시화·시스템화해 그룹의 수익기반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협업을 통해 미래 금융산업의 선도역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의 모바일 전용 상품과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생활금융(오토·여행·헬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모바일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채널을 더욱 다변화하는 등 디지털 경영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하나금융은 신남방 지역과 같이 성장성 있는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채널을 확장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현지 금융기관 인수합병(M&A)과 자본투자(베트남 BIDV은행, 현지 ICT·플랫폼 사업자 제휴(인도네시아 라인뱅크)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향후 하나금융은 주요 지역 해외점포의 심사 현지화를 통해 현지 맞춤 경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비대면채널로 해외송금 시 80% 환율 우대

우리은행 해외송금 이벤트

우리은행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뱅킹 및 우리원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해외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을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비대면채널로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주요통화(USD·JPY·EUR) 최대 80%, 기타통화 최대 50%의 우대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우대 적용하고 전신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란 국민인 거주자가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된 연도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비대면채널 해외송금 이벤트 /우리은행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일 “신년을 맞이해 해외송금이 필요한 고객이 우리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송금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비대면채널을 통해 쉽게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해외송금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세무신고,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하세요”

IBK기업은행 ‘알파세무신고’ 출시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소상공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는 ‘IBK 알파세무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IBK 알파세무신고’ 서비스는 카드 매출, 계좌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기술로 세무장부를 자동 작성한다. 또한 원클릭 세무신고, 동일 업종 납부세율 비교, 부가세 예상액 추

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고객은 세무사 도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 작성과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IBK 알파세무신고’를 출시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banking 서비스 ‘IBK 알파’ 시리즈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혁신금융으로 인허가 규제 4년간 유예·면제

새 동력 찾는 보험·카드사... 신상품 대거 출시

(인슈어테크·송금·결제서비스 등)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77건 지정 보험·카드 분야 24건, 31.1% 달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저금리, 각종 규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 카드사에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활로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중 보험·카드 분야는 24건(31.1%)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금융법상 인허가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자유로운 실험을 돕는 제도다.

보험 분야에서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활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이 출시됐다.

◆ 보험, 신상품 출시 기대

NH농협손해보험은 처음 가입 후 여행을 갈 때마다 설명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가입 가능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출시했다.

전원 스위치를 끄고 켜듯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김희주 기자

적용한 것.

이어 NH농협손보는 지난해 18일 이베이코리아와 손을 잡고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출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직접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소비자는 농협손보 모바일 앱과 웹에서 다이렉트 전용 보험 상품을 선택한 후 상품권 번호를 입력해 보험료를 결제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펫보험 손해를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펫보험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품 개발을 독려한 만큼 펫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DB손해보험의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대상으로 올해 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 채널 모집의 전체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밖에 삼성화재의 ‘소액 기업성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민앤지 ‘위치정보 기반 레저보험’, 보합파트너·레이니스트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 카드, 송금·결제서비스 다양

카드사들도 혁신금융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MY송금)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결제 자투리금액 투자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월세 서비스 등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됐다. My송금(마이송금)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정식 출시됐다.

삼성카드는 오는 5월 ‘문자서비스(SMS) 인증 기반 간편 추심 이체 출금동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기반 소액 송금서비스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KB국민카드도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서비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영세가 매장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